



동서중국브리프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와
제3차 역사결의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와 제3차 역사결의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1. 개요

- 2021.11.8.-11일간 베이징 西京賓館에서 개최
 - 중앙위원 197명과 후보위원 151명 참가
 - “당의 백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결의”(이하 ‘제3차 역사결의’)를 채택
- 금번 6중전회는 전례에 따라 20차 당대회 개최 결의안도 심의 통과
 - 20차 당대회는 2022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결정
- 금번 6중전회는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국면에서, 중국공산당의 3번째 역사결의가 예고된 바, 향후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시진핑 체제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세인의 관심
- 금번 6중전회에서 채택된 ‘제3차 역사결의’ 전문과 이에 대한 시진핑의설명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은 11월16일 신화사에서 발표하고 11월17일 인민일보에 게재
 - ‘제3차 역사결의’의 기초(起草)는 시진핑 당 총서기를 조장,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자오러지 당 기율검사위 서기를 부조장으로 하는 문건 기초팀이 담당
 - 문건의 내용은 중국공산당 당내 원로 등 당내 인사는 물론이고 당외 세력인 민주당파, 전국 공상련, 무당파 인사 등 광범위한 피드백을 받았음을 강조

2. '제3차 역사결의'의 주요 내용

가. 제3차 역사결의의 배경

- 서언(序言)에서는 이번 '3차 역사결의'가 제출된 이유를 3가지로 언급
 - 첫째, 사회주의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새로운 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 둘째,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전 당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 영도 체계를 수호하여 전 당의 통일된 전진을 확보해야 필요성
 - 셋째, 당의 자기혁명과 위기대응 능력 제고 등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할 필요성
- '3차 역사결의'는 1945년 당 6기7중전회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이하 '1차 역사결의')와 1981년 당 11기6중전회의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이하 '2차 역사결의')의 역사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함

나. 중국공산당 100년사에 대한 긍정 평가와 시진핑 시대의 업적 부각

- '제3차 역사결의'는 서문 외에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 1장~4장은 당 100년사를 4단계로 설명, 5~7장은 당 100년사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이에 기초한 중공의 목표와 결의
- '3차 역사결의'는 당 100년사를 신민주주의혁명 시기(1921-1949), 사회주의혁명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1949-1978),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 시기(1978-2012), 중국특색사회주의 신시대 창설 시기(2012-)의 4단계로 구분
 - 신민주주의혁명기의 중심 임무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민족독립, 인민해방을 쟁취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조건을 창조한 것에 있었다고 규정
 - 사회주의혁명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 중심 임무는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사회주의혁명의 실행, 사회주의건설 추진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정치적 전제와 제도 기반 구축에 있었다고 규정

-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 시기 중심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의 정확한 길의 지속적 탐색, 사회적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으로 빈곤탈피와 부국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활력이 충만한 체제와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적 조건 구축에 있었다고 규정
- 18차 당대회 이후로 규정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신시대 창설 시기 중심 임무는 당의 첫 번째 백년(1921-2021)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백년(2021-2121)의 목표 실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거대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데 있다고 규정
- 제3차 역사결의에서 시진핑 시대를 묘사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신시대 창설’ 부분은 전체 내용에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
 -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신시대’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도로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공산당원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사상’을 만들어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
-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신시대의 평가는 당의 영도, 종엄치당, 경제건설, 개혁개방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과 군대 건설, 안보 수호, 일국양제와 통일 추진, 외교 성과를 거론
 -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가 당의 영도의 최고 원칙이며 ‘집중통일영도’ 원칙이 새로운 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의 준칙으로 정립됐음을 강조
 - 저우융캉, 보시라이, 쑨정차이, 링지화 등의 부패 척결을 거명하며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통한 당 정풍 운동의 성과도 부각
 - 경제발전의 균형성, 조화성,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고 GDP 100억 위안, 1인당 GDP 1만 달러 초과 등 경제발전 성과도 달성
 -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시작하고 ‘일대일로’ 추진 등 보다 심층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개혁개방을 심화
 - 서방의 헌정, 다당제, 삼권분립 등 정치사상의 침식과 영향을 막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잘 발휘되었다고 자평
 - 18기 4중전회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여 이후 헌법 수정과 민법전, 외국인투자법, 국가안전법, 감찰법 등을 제정했다고 강조
 -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문화건설을 선도하고 사회주의 선진문화, 혁명문화와 중화전통 문화로 근본을 다져 이데올로기 상황을 전환시킴

- 빈곤퇴치,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고 소득분배, 취업, 교육,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택보장을 제시했으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
- 신시대 강군 목표와 군사전략 방침을 확립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전략을 제시했으며 귀보숨, 쉬차이허우 등의 부패를 척결
- 총체적 국가안보관 하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국가안보영도 체제를 완비하고 홍콩, 대만, 신강, 서장, 해양 등의 국가안보를 수호
-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제정했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관리’ 원칙하에 외세의 간섭을 막고 대만당국의 ‘대만독립’ 분열행위를 반대
- 중국특색의 대국외교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 구축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 정당 교류와 협력을 심화

다.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교훈 제시

-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당의 영도, 인민지상, 이론의 혁신, 독립자주, 중국의 길, 천하의 포용, 개혁과 혁신, 과감한 투쟁, 통일전선, 자아혁명 등의 견지라고 강조
 - 당의 전면적 영도 특히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와 민주집중제를 견지하여 당의 핵심과 중앙권위를 수호할 것
 - 당은 오직 광범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고 당의 군중노선을 견지하여 인민을 위해 그리고 인민에 의지해 집권하고 발전을 도모할 것
 - 당의 근본적 지도사상인 마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라는 이론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실천을 지도할 것
 - 독립자주와 자력갱생을 견지하고 유익한 외국경험도 학습하되 민족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갖고 악한 세력을 추종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
 -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실제에 부합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나아갈 것
 -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여 시종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면서 세계평화도 수호하며 세계의 진보세력과 손잡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
 - 이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 및 기타 제반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세상을 앞서가는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

- 새로운 위대한 투쟁의 역사적 특징을 파악하고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 활용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고 투쟁정신과 투쟁능력을 증강하여 전당과 전국 인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낼 것
-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하여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대내외 동포관계의 조화를 촉진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수립할 것
- 당의 오류를 숨기지 않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적극 전개하여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를 꾸준히 제거할 것

3. 제3차 역사결의 평가와 전망

가. 당내 노선투쟁 종결과 시진핑(習近平) 노선의 공식화

- 과거의 제1차, 제2차 역사결의의 공통점은 당내 노선투쟁의 종결로 각각 마오쩌둥 노선과 덩샤오핑 노선이 확립되는 계기였음
 - 1945년 제1차 역사결의는 옌안(延安) 정풍(整風)운동을 통해 당내 소련 추종의 좌경노선인 ‘왕밍(王明)’노선을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로 규정짓고 마오쩌둥(毛澤東)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공식화
 - 1981년 제2차 역사결의는 문화대혁명을 철저히 부정해 마오쩌둥의 오류로 비판하고 마오쩌둥 추종의 ‘화궈펑(華國鋒)’ 노선을 범시파 좌경노선으로 규정짓고 덩샤오핑(鄧小平)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확립
- 1,2차 역사결의와는 다른 서술 방식에도 불구하고, 제3차 역사결의 역시 당내 노선투쟁의 종결과 시진핑 노선의 확립을 의미
 - 표면적으로 3차 역사결의는 1,2차 역사결의와는 달리 공산당 전임 지도자의 노선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의 업적을 차례로 나열
 -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진핑 집권 직전까지의 30여년의 기간과 전임지도자에 대한 서술은 간단한 반면,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9년은 전체 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
 - 이는 시진핑 노선이 덩샤오핑 노선을 공식 부정한 것도 아니지만 추종하지도 않은 것으로

사실상 덩샤오핑 노선을 추종한 당내 개혁파와의 노선 투쟁에서 승리했음을 시사한 것

- 권력분산(分權)에 입각한 민간 주도의 경제사회정책과 미국의 패권과 타협한 현상유지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한 덩샤오핑 노선과는 달리 시진핑 노선은 권력집중(集權)을 통해 국가주도의 경제사회정책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현상타파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는 노선

나. 시진핑 1인 체제의 역사적 지위 획득과 국내정치

- 시진핑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중국공산당의 역사 결의로 확보
 - 시진핑은 당 중앙의 핵심이자 전당의 핵심 지위에 있음이 역사 결의로 확립됐고 당의 영도 방식도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통일 영도(集中统一领导)’라고 역사 결의에서도 명기
 - 이는 당의 역사 결의를 통해 시진핑 1인 권력 지위를 보장하여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 시진핑의 1인 권력체제와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당주석 부활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3차 역사결의가 계기가 되어 ‘시진핑 사상’이 중국공산당사에서 역사적 권위를 얻은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중국공산당 6기7중전회에 통과된 1차 역사결의에서 ‘마오쩌둥 동지를 대표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이 곧이어 열린 7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사상’으로 승격되어 당 장정에 삽입
 - 3차 역사결의는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명기했으며 신시대 중국공산당이 두 번째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전면적 관철을 강조
 - 3차 역사결의는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후계자들을 육성하고 당원, 간부들이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도록 교육, 인도할 것을 명시
 - 결국,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은 2012년 이후 중국공산당 100년을 이끄는 지도사상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것

- 따라서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은 ‘시진핑 사상’으로 공식 호명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시진핑이 적어도 2022년 20차 당대회의 집권 연장은 물론이고 2027년 21차 당 대회 이후에도 집권할 가능성이 보장됨
 -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최소한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고 당 총서기직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만약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서 물러나면 당 주석직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음
 - 시진핑과 시진핑 사상의 역사적 지위가 3차 역사결의로 확고히 보장된만큼 시진핑은 2027년 21차 당 대회 이후에도 집권 연장 등 권력 유지가 가능
- 단, 3차 역사결의에도 불구하고 돌발적 정세변화에 따라 내부 반발은 재현될 수 있음
 - 사회 통제를 강화해온 시진핑 노선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 등 정부의 경제 관리가 실패하면 당내 개혁파가 여론에 기대서 반발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음

다. 대외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관찰

- 3차 역사결의에 미국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미국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
 - 중국은 신시대 즉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서 국가간 국력관계의 큰 변화가 일어나 세계는 큰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미국을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 강권정치의 위협으로 지칭하며 이에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제3차 역사결의는 국방과 군 현대화 필요성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강군 건설 전략을 자세히 기술하고 전쟁대비 강화를 명시
 - 제3차 역사결의는 국가안보 필요성도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막는 모든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
-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

- 홍콩, 마카오에 대해선 ‘애국자에 의한 관리’의 실시, 대만에 대해선 ‘대만독립’ 분열 행위의 저지를 강조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조국통일을 언급
- 이번 발표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꿈꾸고 있음을 시사
 - 중국공산당은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적극 촉진하고 경제글로벌화가 공동 번영에 유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표명
 - 중국공산당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광범한 개도국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표명